



일곱번째 맞는 늦가을

情든 우리協會의 여러분께 올립니다.

吳 判 龍

벌써 7년전의 일입니다.

'85년 10월초 당시 코오롱고문으로 계신 文莊寅 부회장으로부터 國立公園協會活動의 重要性和 未來像 그리고 空席中인 事務局長으로 추천하고 싶다는 권유를 받은 것이 協會와의 因緣이 되었습니다. 그때 K廣告會社의 重役迎入 交渉이 있어 毎日같이 나가서 日本 廣告會社 손님과 營業相談을 하던 中이므로 며칠동안 確答을 못하고 망설였다. 보수는 廣告會社보다 월등히 적지만 子孫萬代에 물려줄 국립공원을 비롯한 모든 自然公園을 잘 保護하고 올바르게 利用하도록 국민운동을 떠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 여겨졌다. 이 "아름다운 運動"을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며 언젠가는 국민들의 전폭적 支持를 받아 꽃필날이 올것이라 믿어졌다.

그해 10월 15일 평소 존경해 왔던 李滌 會長님으로부터 사령장을 받고 사무국장자리에 앉았으나 재정상태가 말이 아니기에 눈앞이 캄캄했다. 1971년 10월 27일에 건설부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로 탄생된 협회가 우여곡절 끝에 그해까지 14년을 끌고 왔다고는 하나 82년에 建設部 주무국장의 권유로 코오롱總帥인 李東燦회장이 부채를 정리해 주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 會勢 확장에 먼저 힘을 쏟기 위해 定款을 두번이나 개정하고 支部設置 運營規定등도 李洛善會長을 맞아 몇차례 바꾸는 등 會勢擴大에 注力했다. 이에 앞서 85년 말엔 아쉽긴 하나 運營紀綱을 바로잡기 위해 長期會費滯納會員 100名中 1次로 50名을 제책했더니 從前 會員은 不過 143名밖에 남지 않았다. 그 代身 새 會員은 急速度로 늘어났다. 協會를 活性化하기 위해선 會員擴張이 가장 時急했다. 一般會員이건 團體會員이건 全力을 기우릴 수밖에 없었다. 褒賞制度도 만들고 支部設置規程도

손질해서 公園地域別 支部新設과 不實支部의 改編도 斷行했다. 會誌도 漸次的으로 增刊하여 85년까지 每回 1,000部씩 發刊 配布한 것이 每回 8,000部씩 發刊하여 會員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물론 對國民弘報次元에서 全國國公立 圖書館·各大學도서관·各市·道·市·郡과 教育廳·檢·警·消防署·各界有志·內外重要機關團體에 郵送해 共感帶 形成을 促求하여 이제 自動的으로 會員이 漸進的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로 協會는 창립20周年을 맞게 되고 저가 사무국장자리를 맡은지도 滿6년이 경과했지만 20周年 紀念行事도 못할만치 궁색하다. 또한 今年中 月岳山을 비롯 雉岳山, 月出山, 小白山北部, 北漢山南部, 閑麗海上中部, 俗離山東部 등 7個 國立公園의 支部創立과 漢拏山과 智異山東部の 改編을 끝내고 흥가분하게 물러날 覺悟로 서둘렀으나 全沃千支部長과 朴萬澈管理所長의 獻身的인 協助로 月岳山支部만 創立된 것이 무척이나 죄스럽고 마음이 무겁지만 합니다. 그러나 不實支部를 포함해서 4개소밖에 없던 支部가 이제 28개소나 되었다는 것은 87년에 國立公園管理公團이 誕生되어 積極的으로 協助받게된 德分이라 하겠습니다. 새삼 이자리에서 公團의 歷代 任員님과 管理所長 및 幹部陣에 感謝를 드립니다. 國立公園을 비롯한 各級自然公園을 對象으로 한 ▲全國初·中·高生 自然公園美術實技大會 및 展示會 ▲自然公園사랑國民歌謠作詞作曲募集 ▲國立公園사랑全國初·中學生 글짓기 懸賞 公募 ▲國立公園別 심볼選定. 심볼마크의 知的所有權 登錄과 公園別 特色있는 土產品의 開發誘導(심볼마크의 活用권장) ▲國立公園뿐만 아니라 道立·郡立公園과 資源이 豊富한 國民觀光地까지도 自然保護와 올바른 利用을

啓導할 支部設置推進 ▲廢棄物의 再活用 運動의 展開(自然保護 有關機關 및 國民運動體의 結束) ▲會誌「國立公園」의 增刊으로 各 專門大와 初·中·高 環境擔當教師 및 校長先生까지 擴大配布등 해야할 일은 山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會員으로서, 또는 企劃要員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管理公團자문위원의 한사람으로서 末席에서나마 白衣從軍하면서 못다한 여러가지 企劃事業을 親愛하는 後任 崔鎮燮局長과 張時榮委員이 推進할 수 있도록 微力하나마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會員士氣振作을 위해 褒賞規定도 만들고 學術研究發表를 위한 附設自然公園研究所의 設置.

財政難으로 中斷된 學術세미나의 再開와 自然公園法 속에 協會設立目的을 넣어 法定團體로 한 것. 代議員制總會運營등 저가 있는 동안의 變化도 많았습니다.

떠나는 자리에서 各支部長님과 支部운영위원여러분 특히 사무국장여러분께 그동안의 勞苦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무런 도움을 못드린 것을 罪스럽게 여깁니다. 昨年과 今年 두번이나 豫算에는 支部通信費를 計上해 놓았으나 運營이 如意치 않아 또다시 不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協會에 對한 政府의 支援이 너무나 消極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좀더 힘을 모아 國民들의 信賴와 支持를 받는 協會活動을 展開해야만 할 것이라 여깁니다. 우리들의 熱烈한 自然公園사랑運動이 國民들의 共感을 얻어 組織이 10萬에서 100萬名으로 擴大되면 어떤 政權도 關心을 기우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強力한 民間團體로서의 眞價를 發揮하게 될때 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追求하는 NGO 精神인 것입니다. 그러나 主務部에서 그때까지는 公團을 經由해서라도 좀더 積極性 있는 育成策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작년 처음으로 協會가 主催하고 公團과 서울신문社가 後援이 되어 實施한 第1回 국립공원사랑 全國 初·中學生 글짓기 顯賞公募도 今年에는 여러가지 事情으로 못했습니다. 그 여러가지 事情가운데 豫算 不足도 큰 理由의 하나인 것입니다. 많은 歲入豫算

을 公園入場料와 駐車料에 依存하고 있는 公團으로서는 政府가 強力推進케한 自然休息制의 擴大는 登山路의 廢鎖를 수반하게 되고 그것은 곧 歲入의 缺損으로 變하여 結果적으로 赤字豫算을 露呈하고 말 것입니다.

公團의 財政이 위와같이 궁핍한데다 協會는 協會대로 거의 會員의 會費에 依存하다 시피 되고 있으니 活性化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管理公團은 利益을 내서는 안되지만 入場料에 너무 많은 比重을 둔 政府豫編成 자세 自體가 自然公園을 늘이듯처럼 만들게 되는 二律背反인 모순 덩어리라 하겠습니다.

日本처럼 自然公園에 關한 限 모든 施設이나 自然毀損行爲에 對한 協會의 자문이 先行되게 制度化하여 이에對한 자문 및 意見書 名目으로 總工費 15%를 支援토록 하는 政策의 配慮도 考慮할 일입니다.

豫算으로 反映도 안되고(現在 年 3,000만원을 公團豫算서 支援), “라이선스”도 하나 안준다면 民間團體의 活動을 크게 期待한다는 政府의 環境關係意志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建設部 關係官여러분과 內務部 關係官 그리고 忠告와 原稿를 주신 生態學界의 여러學者, 研究家, 文人, 登山家 諸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公園協會는 이제 훌륭한 崔局長을 맞아 앞으로 발랄한 活動을 展開할 것임을 굳게 믿고 여러분과 함께 聲援의 拍手를 보내고자 합니다.

壬申年 새해에도 會員여러분이 健康하시고 宅內萬福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저는 지금 눈감고 그동안 同苦同樂한 自然公園사랑의 全國同志여러분의 그리운 모습을 聯想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筆者：前言論人：本會直前事務局長〉

註：筆者是 健康上 理由로 지난 봄부터 떠나려했는데 會誌 51號를 發刊하고는 決行하여 10월 31日 辭任코 11월 1日부터 서울 城東區 聖水2街 277-151 正韓實業會長으로 就任하여 同社의 營業伸張과 人和 및 社勢 向上을 위해 努力하고 있다. (電話 467-8311~4 FAX 467-4255)